

1980년대 이후 중국 조선족여성 복식의 현상연구

채 미 화
(연변대학 조선어문학부)

I. 시장경제문화와 복식미

복식은 하나의 문화현상으로서 그것은 탄생된 이후 시대의 변화발전에 따라 더욱더 짙은 문화적 색채를 띠게 되었다. 80년대 이후 중국 시장경제의 실천과 발전은 사람들의 복식미에 대한 수요를 가일층 강화하고 제고시켰으며 복식에서 형식미의 규률에 따라 아름다운 것을 선택하고 미운 것을 도태하게 하였다. 동시에 미에 대한 추구가 선차적인 것으로 제기됨으로 하여 복식의 다양화와 경쟁화가 산출되었다.

II. 중국 조선족여성들의 복식현상

중국 조선족여성들의 복식미에 대한 추구는 전통문화와 시장경제문화와의 갈등속에서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다.

- 첫째, 의복의 고급화는 사회적 자아가치를 과시하는 하나의 표준으로 되고 있다.
- 둘째, 의복의 다양화, 개성화하는 여성들의 개성적인 미적추구의 뚜렷한 징표로 되고 있다.
- 셋째, 복식의 성감화는 여성들의 자신의 성애성미(性愛性美)를 나타내는 주요한 방식으로 되고 있다.
- 넷째, 실용적 의복의 대중화는 조선족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의식의 반영으로 되고 있다.

III. 금후 중국 조선족여성들의 복식발전추세

앞으로 중국 조선족여성들의 복식은 동방복식문화 특히는 한국의 복식문화의 밀접한 영향속에서 더욱 급속한 추태로 간편화·실용화의 방향으로 발전될 것이다.